

# 8강 확정 신태용호 “이라크전은 자존심 싸움”

AFC U-23 챔피언십 C조 2차전 권창훈 3골... 예멘 5-0 대파  
20일 이라크와 3차전... “대진은 위해 일부러 패하진 않을 것”



8강 진출을 확정  
한 태극전사들이  
이라크를 상대로 아  
시아 최강의 자존심  
을 세운다.

신태용 감독이 이  
끄는 올림픽 대표팀  
은 20일 오전 1시30  
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라크와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  
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3  
차전을 치른다.

일단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예멘을 연  
파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한 궤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에서 2-1 승  
리를 거둔 뒤 '3골 1도움'을 올린 권창훈의  
활약 속에 예멘을 5-0으로 대파했다.

신 감독은 16일 예선전이 끝난 뒤 기자  
들과 만나 “이라크와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라  
크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D조 1위나 2위  
팀과 8강에서 맞붙게 된다. 현재 D조 상황  
을 보면 1패를 안고 있는 호주가 2위, 호주  
를 꺾은 아랍에미리트(UAE)가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UAE보다  
는 호주가 좀 더 걸리려온 상대다.

신 감독도 “솔직히 호주를 피하고 싶다.  
호주보다는 UAE가 수월하다”고 털어냈다.  
그러나 우승을 목표로 삼은 신 감독은

오직 전진만을 외쳤다. 8강에서 좀 더 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패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신 감독은 “만약 3차전에 진다면 선수들  
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만큼 패배 이후 분  
위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  
다. 이에 따라 신 감독은 이라크전에도 최  
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이라크와 역대 전  
적에서 2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회 AFC U-23 챔피언십 우승팀인  
이라크는 만만한 팀이 아니다. 이라크는  
예멘과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고, 우즈  
베키스탄과의 2차전에서 3-2로 승리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낸  
미드필더 후맘 타레크 파라즈는 예리한 왼  
발 슈팅 능력을 갖고 있고, 알리 히스니 파  
이살도 골문 근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맞서는 한국도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킬 것  
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예선전에서 체력안배를 하  
고도 대승을 거뒀다”며 이라크전에도 선  
수구성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  
고했다. 다만 코백 부상으로 예선전에 결장  
한 송주훈(미토 홀리호크)은 다시 포백(4-  
back)라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S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예선 대한민국대 예멘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권창훈이 득표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식번호 받고 첫 스프링캠프 KIA 박진두·박동민

### “선배 노하우 흡수” 박진두

KIA의 10번 박진두(20)와 39번 박동  
민(24)의 ‘두근두근’ 생애 첫 스프링캠프  
가 시작됐다.

KIA의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선수단  
이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0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버스로 5시간 여를 달려 담금질의  
무대인 스킨스테일에 도착했다. 고된 이  
동에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 두 선수가 있  
다. 새로운 이름과 기회를 받은 고졸 3년  
차의 좌타자 박진두와 대졸 2년차 사이  
드엄 박동민이 그 주인공이다.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선수들은 새 유니  
폼을 지급받았다. 야구 선수에게 배번  
은 자신의 또 다른 이름. 박진두와 박동민  
은 10번과 39번이라는 새 이름까지 동시  
에 받았다. 육성선수 신분으로 07과 017  
을 사용했던 이들은 정식번호와 함께 생  
애 첫 스프링캠프라는 기회를 품었다.

“감독님의 약속대로 10번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박진두.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박진두는 “몇 번을 달고 싶으  
나?”는 김기태 감독의 질문을 받았다. 박  
진두는 조계현 수석코치의 조언 속에 10  
번을 이야기했고, 10번의 주인 황대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터라 오케이 사인  
이 나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10번이 박진  
두의 이름이 됐다. 황대인의 군입대 불발  
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지



### 박동민 “나를 각인 시킬 것”



난 1년 사연 많았던 황대인이 새 기본  
으로 출발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용했던 10번 대신 5번을 선택하며 자연  
스럽게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박진두는 “체력테스트가 끝나고 캠프  
명단이 발표됐는데 내 이름을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지난해 체력테스트  
러닝을 겨우 뛰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  
다 훨씬 좋은 기록으로 들어왔다. 열심히

했다의 자부심도 느껴졌고, 개운하고 후  
련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기본 좋고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쟁쟁한 선배들과 치르는 첫 캠프. 골  
이 그라운드에서 운동을 하고 싶었던 최  
희섭 선배가 없다는 게 아쉽지만 선배들  
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자신만의 힘과 타  
격을 보여주고 싶다.

박진두는 “주변의 기대를 부담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배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 지 보고 배우고 생각하  
겠다. 오키나와캠프와 시범경기에서도 좋  
은 모습을 보여 기회를 잡고 싶다”며 “타  
격과 힘으로는 선배들에게 뒤처지지 않  
는다는 인식을 주도목 하겠다”고 캠프에  
입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동민도 새 유니폼을 받고 잠을 이루  
지 못했다.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잠수  
함’ 유동훈 코치의 번호이기도 한 39번,  
꼭 달고 싶던 번호다.

박동민은 “대학 때부터 달고 싶던 번호  
다. 새 번호의 유니폼을 받고 기분이 좋  
았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정식선수가 됐  
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다”며 “스프링캠프  
를 기대하긴 했지만 진짜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회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  
고 자부하는 박동민은 ‘각인’을 목표로  
캠프를 치를 생각이다.

박동민은 “점점 욕심이 생긴다. 마무리  
캠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한다.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하고, 나를 각인 시켜야 한  
다”며 “잔부상이 많은데 부상 관리 잘하  
겠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운동을 하게 됐  
다. 긴장도 되지만 의식하지 않고 내 운동  
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 클래식 3월 12일 개막

광주FC, 포항 원정 경기... 전남, 13일 홈서 수원전



3월 12일 K리  
그 클래식이 8개  
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  
연맹이 지난 15일  
2016 K리그 클래  
식 경기 일정을 확정  
, 발표했다. 공식개막  
전은 3월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  
에서 열리는 ‘2015 클래식 우승팀’ 전북 현  
대와 ‘2015 FA컵 우승팀’ FC 서울의 맞대  
결로 결정됐다.

전남 드래곤즈는 13일 수원 FC를 안방  
으로 불러들여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같  
은 날 제주 유나이티드-인천 유나이티드  
(오후 2시·제주월드컵경기장), 상주 상무-  
울산 현대(오후 4시·상무시민운동장)의  
경기도 치러진다.

수원 FC가 클래식 무대로 도약하면서  
성사된 수원 삼성과의 ‘수원더비’는 5월14  
일 펼쳐진다.  
클래식 12개 팀은 팀당 38경기씩 총 228  
경기를 치른다. 3월12일 시작된 대장정은  
11월6일 마무리된다.

대회방식은 지난 시즌과 같다. 12개팀이  
3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33라운드 일정을  
 소화한 뒤, 1~6위와 7~12로 그룹으로 나  
뉘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한다. 스플릿 라  
운드는 그룹 A, B로 나뉘 팀당 5경기씩 진  
행되며, 이에 따라 우승팀과 강등팀이 가  
러진다.

한편 3월26일에는 K리그 챌린지의 시  
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다.  
챌린지는 10월30일까지 44라운드 일정  
으로 전개되며 11월2일 준플레이오프, 11  
월5일 또는 6일 플레이오프가 치러진다.

승격과 강등이 걸린 ‘운명의 승부’ 승강  
플레이오프는 11월17일과 20일 각각 1·2  
차전으로 나뉘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

## “K리그 공인구에 응원 문구 새겨요”

### 2016 캐치프레이즈 공모

프로축구연맹이 2016시즌 K리그 공인  
구에 새겨질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최고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정된 작품은  
2016 K리그의 공인구인 아디다스의 ‘에레  
조타’에 새겨져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공모 이벤트는 K리그 공식 SNS인 페이  
스 북 (www.kleague.com/with-  
league), 인스타그램(kleague), 트위터  
(@kleague)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2차  
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이벤트 기간은 26일까지이며, K리  
그 공식 SNS에 올라온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이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1  
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2차 투표가 이뤄  
진다.

투표는 네이버 스포츠 투표창을 통해 진  
행되며, 팬투표 70%와 심사위원단 심사  
30%를 통해 최종작이 선정된다.

당첨자에게는 응원구단의 제주 원정 속  
박권(1박)과, 항공권(동반 1인), 응원문구  
가 새겨진 공인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2  
등에게는 응원 구단의 2016시즌 유니폼과  
응원문구가 새겨진 공인구, 3등에게는 응  
원문구가 새겨진 공인구가 주어진다.

또 댓글 및 투표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  
해 2016시즌 K리그 캘린더와 K리그 자  
석 세트권을 선물로 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알피니스트 산실 ‘광주·전남등산학교’ 개설

### 21~27일 한라산

지역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오는 21일부터 한라산에 개  
설된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과 (사)광주전  
남등산학교는 “제37회 광주·전남등산학  
교 동계반을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국립공원 한라산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  
진)과 전남도연맹(회장 이상현)이 주최하  
는 이번 등산학교는 일반과정과 지도자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과정에는  
산악회원은 물론 등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도자  
과정은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자와 전  
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가 입교  
대상이다.  
교육은 장비사용법, 프랑스식 등반기

술, 러셀, 글리세이딩, 활락정지(漸落停  
止), 설상확보물 설치, 주마령, 안자일렌,  
실벽등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차례  
종합훈련으로 마무리한다.

6박7일간 필요한 장비·빙벽 장비와 식  
량을 준비해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 광  
주시 서구 월드컵경기장내 광주시산악연  
맹으로 집결하면 된다. 입교비는 일반과  
정 12만원, 지도자과정 10만원.

문의와 접수는 광주·전남학생산악연  
맹 사무국(062-521-8848, 010-4640-  
8848)에서 받는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악학교’가 그 효시로 하게 정구  
반과 암벽반, 동계반 등을 매년 운영해  
지금까지 3000여명의 산악인을 배출했  
다.

경장자 광주·전남등산학교 교장(광  
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은 “올바른  
산악문화와 등산기술을 보급하는 등산학  
교에는 히말라야 등반 등 풍부한 실전 경  
험을 지닌 산악인들이 강사로 참여해 하  
안산에 도전하고픈 산악인 지망생들에게  
강인하고 건강한 산악정신을 심어줄 것”  
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